**다음 소프트 소셜 매트릭스를 활용한 관심 키워드 분석**

**<페미니즘>**

13012002 교육학과 오정은

14011872 영어영문학과 안시은

16011909 영어영문학과 강영은

**Ⅰ. ‘페미니즘’ 탐색어 맵**

‘페미니즘’에 관한 연관어로는 크게 ‘여성 혐오’, ‘인권’, ‘한국’, ‘차별’, ‘책’, ‘여성의 날’, ‘엠마 왓슨’, ‘요구하다’, ‘비난’, ‘좋다’, ‘멍청하다’가 탐색되었다. 2016년 한국을 충격에 빠뜨린 ‘강남역 살인사건’이 ‘여성혐오’가 바탕이 된 살인사건이라는 여론이 거세지면서 한국 사회는 ‘여성 혐오’라는 사회적 현상과 그 근본인 ‘여성 인권’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특히 여성들은 가부장적인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하게 받아 왔던 ‘차별’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는 페미니즘이란 무엇이며, 그 동안 사회에 만연하게 퍼져있던 차별에는 어떤 것들이 더 있고, 그 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여성의 인권을 주장해야 하는 가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페미니즘 책’과 ‘여성의 날’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된 듯 하다. 페미니즘과 관련하여 가장 높은 빈도수로 언급되는 인물은 ‘엠마 왓슨’인데, 엠마 왓슨은 낮은 여성 인권이 해외에서조차 수면 위로 떠오르기 전부터 SNS를 활용하여 꾸준히 여성 인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혀왔고 페미니즘에 대한 연설을 한 바 있다. 따라서 페미니즘에 대한 개념이 생소하고 여성 인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공개적이고 지속적으로 밝히는 유명인이 없는 한국 사회에서 엠마 왓슨은 대표적인 페미니스트로 인식되고 있다. 한 편, 여성 혐오에 강력한 분노를 느낀 여성들은 이를 표출하고 여성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 다소 거친 언어를 선택하기도 하는데, 이는 일부 남성들과 여성들에게 거부감을 주어 비난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비난에 여성들은 더 큰 분노를 느끼며 비난을 하는 사람들을 ‘멍청하다’라며 역으로 비난을 하기도 하며, 급진적인 변화이지만 뒤늦게 여성의 인권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현 상황을 ‘좋다’라고 표현하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Ⅱ. ‘페미니즘’ 탐색어 여론 (긍/부정 연관어)**

이번에는 '페미니즘'의 10가지 긍/부정 연관어에 대한 마인드맵과, 각 단어의 탐색 건수와 탐색 순위를 살펴보았다. 이 긍/부정 연관어로 이루어진 마인드맵에는 '멍청하다', '차별'이라는 부정적 단어가 앞서 살펴보았던 탐색어 맵과 중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성의 날', '엠마왓슨'과 같은 일반적인 명사보다는 '페미니즘'에 대한 여론을 확실히 알아볼 수 있을 만한 꽤 감정적인 단어들로 구성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총10개의 연관어 중 부정으로 분류되는 단어는 5개, 긍정적 단어는 4개, 중립 단어는 1개이다. 페미니즘이 인터넷상에서 예민한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기에 부정 연관어가 절반을 차지하는 것은 그리 놀랍지 않은 결과이다. 탐색 순위 1위 연관어는 '차별'로 총 46,337건을 차지한다. '페미니즘'이라는 단어의 기원이 여성 차별에 대한 저항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차별'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레 많이 등장하고 있으리라 추측된다. 순위를 보아도 2,3위 단어들과는 압도적인 차이를 보인다. 그런데 2,3위 단어에서 다소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1위 연관어인 '차별'과 맥락적으로 유사한 '여성혐오'는 3위에, '멍청하다'라는 단어는 2위에 올라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언뜻보면 2,3위가 바뀐 것 처럼 보인다. 이는 인터넷상에서 페미니즘이라는 사안을 두고 갈등하는 네티즌들의 여론을 잘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라 여겨진다. 주로 트위터에서 '멍청하다'라는 말이 페미니즘에 대한 게시물에서 여러번 언급되고 있는데, 페미니즘의 정확한 정의를 알지 못하고 '여성우월주의'와 관련된 단어라고만 인식하는 사람들을 비난할 때 주로 쓰이고 있다. 나머지 순위를 살펴보면 4위에 중립 연관어 '요구하다'가 올라있고, 5위에 '비난'이 올라있다. 이렇게 1위부터 5위까지가 모두 부정어이며, 6위~10위에 '좋다', '웃음', '올바른' 등의 긍정 연관어가 올랐다. 이러한 연관어 마인드맵과 탐색 순위를 보아 페미니즘에 대한 여론이 매우 뜨거우며 앞으로도 이를 두고 꾸준한 대립과 설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Ⅲ. ‘페미니즘’ 탐색어 추이 (2017.03.02~04.02)**

한 달간의 ‘페미니즘’ 사용 추이와, 그와 같이 사용된 긍/부정어의 추이를 나타낸 두 가지 그래프를 살펴보았다. 먼저 탐색어 추이 그래프의 경우 Blog 와 Twitter의 두 가지 소셜네트워크에서의 사용 빈도를 다루고 있다. Blog에서의 ‘페미니즘’ 사용 추이는 매우 낮은 사용 빈도로 일정한 반면, Twitter의 경우 Blog의 사용빈도를 아주 높은 차이로 따돌리며 거의 일정한 흐름 없이 급격히 증가했다가 낮아지는 등 예측이 어려운 양상을 보인다. 본 그래프에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페미니즘 단어가 갖는 속성에 따라 여성의 날인 3월 8일 사용빈도가 두 번째로 높았으며, 3월 25일에 2000정도의 차이로 한달 간 가장 높은 추세를 보였다. 이는 3월 23일부터 이틀에 걸쳐서 증가한 것으로, 한 달간의 양상에서 오직 이 기간만이 일정 기간에 걸쳐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30일 이후로는 점진적인 하락세로 가장 낮은 사용빈도를 경신하고 있다. 긍/부정어 추이의 경우, 부정어의 추이가 3월 5일, 8일, 11일에서 가장 급격한 사용빈도를 보였고, 이 날짜들 전후로는 매우 낮은 사용빈도를 보이는 등 그 흐름이 아주 격심하다. 긍정어의 경우 3월 5일에 가장 높은 사용기록을 경신했지만 여전히 부정어에 미치지 못하였다. 3월 중순에 들어서면서부터 긍/부정어 모두 3월 초순 대비 빈번하게 사용하게 사용되지 않았고, 3월 16일, 25일, 28일 각각 긍정어가 부정어를 추월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중립어의 경우 3월 8일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이후로 꾸준하고 일정하게 낮은 추이를 기록하고 있다.